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의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내 몸을 태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8월 17일) 2018년 9월 26일 수요일



염불은 신난다, 불교는 즐겁다 9월 19일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염불 소리와 환호 소리가 함께 얽힌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4년 만에 개최한 제2회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에서 대중과 호흡하는 다양한 모습의 염불이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기타 등 악기연주와 랩, 댄스 등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톡톡튀는 스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은 이날 단체팀으로 참가한 스님들이 바라와 목탁을 들고 율동을 하며 구성진 가락을 대중들에게 선사하는 모습.
사진= 박재완 기자

교구중심제 '공감' 범위는 '이견'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자 검증 위한 종책토론회 열려

중앙종회 · 본사주지협의회 주관
이틀간 두 차례 걸쳐 종책검증

혜총-직선제 등 인사제도 변화
원행-연금 · 의료보험 전액지원
정우-교구별 특별분담사찰 지정
일면-복지사찰 지정해 승가복지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선거에 나선 네 후보자들이 중앙선관위 주최로 처음 열린 종책토론회서 교구중심제 실현을 공통으로 주장했다. 다만 중앙의 행정업무 이관범위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이견을 보였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9월 19일과 20일 각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과 영천 은해사에서 제36대 총무원장 후보자 종책토론회를 개최, 후보들의 종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19일 토론회는 중앙종회가, 20일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총무원장 후보자인 혜총 · 원행 · 정우 · 일면 스님 모두 참석했다.

네 후보는 모두 교구중심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중앙에 집중된 행정업무와 권한을 교구에 이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교구에 이관할 기본 행정업무와 인사권 · 재산관리권 범위 등을 두고 후보별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가장 차이가 두드러진 권한은 재산관리권이었다. 기호1번 혜총 스님과 기호2번 원행 스님은 각 교구에서 재산처분 등의 권한까지 갖도록 하는 교구중심제를, 기호3번 정우 스님과 기호4번 일면 스님은 재산관리권을 종단이 관장하는 교구중심제를 주장했다.

사법 성격의 징계문제와 관련해서는 혜총 스님과 일면 스님이 교구에 일임하는 방안을, 원행 스님과 정우 스님은 종단차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후보별 최우선 추진 종책은

총무원장 당선 시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종책에 대해 혜총 스님은 직선제와 본사주지 단임제 등 인사제도 변화를 꼽았다. 혜총 스님은 "간선제를 잘해왔지만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승가의 공평한 참종권을 위해 직선제를 실행해야 한다"면서 "본사주지는 단임제를, 말사주지는 10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행 스님은 스님들에 대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전액 지원을 내세웠다. 원행 스님은 "종단은 내년에 국민연금 3만6000원과 의료보험 2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지급대상이 1500여 명뿐이다. 이를 1만2000여 모든 승려들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 경우 1년간 6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면서 승보공양운동을 전개하고, 각 교구에서 일정부분 분담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우 스님은 교구중심제와 교구별 특별분담사찰 지정을 공약했다. 정우 스님은 "총무부장 소임을 볼 때 직영사찰서 얼마 이상 집행할 때 총무부장 전자결제가 필요하단 것을 알게 됐다. 호법부 인사조회와 분담금 납부 등을 중앙과의 전자결제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교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교구별 특별분담사찰을 지정하면 승가복지 등 탄력적인 기금운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면 스님은 교구중심제와 복지사찰 지정에 무게를 실었다. 일면 스님은 "말사주지를 본사주지가 임명하고, 총무원 호법부 조사 대신 교구에서 상벌을 정하는 교구중심제가 중요한 것 같다"며 "해당 본사마다 복지사찰을 정하고, 일부 수입을 교구복지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시대 필요한 포교전략

현재진행형인 포교활성화와 관련해 네 후보들은 각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포교기조를 세웠다.

혜총 스님은 봉은사 화주를 통해 3000평 대지에 33층 건물을 지어 포교단체 공간 제공과 임대수입이라는 포교전략을 밝혔다.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 직속 불교문화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와 농촌 사찰 간의 결연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우 스님은 포교를 위해 직접 활동한 극단 창단과 인터넷TV 운영 등을 예로 들며, 사찰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적인 접근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면 스님은 본사 주변 대도시의 토지에 불교회관을 건립하되 예산의 30%를 종단이 함께 모금해 보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종책토론회는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종책과 관련해 후보자간 질의가 오가는 논쟁은 없었지만 폐쇄적인 기존 선거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후보들에게 주어진 질문이 대부분 거시적이어서 종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을 검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기사 A2 · 3면〉

쌍용차 사태 해결 9년 버팀목 역할한 조계종

쌍용차 해결, 불교계 역할과 의미

KTX에 이어 쌍차 사태도 오랜 노사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2700여 명의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이 9년 만에 사측과 전원복직 교섭을 타결했다. 2009년부터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불교계는 쌍차지부와 연대하여 버팀목 역할을 하며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쌍차지부), ㈜쌍용자동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교섭을 통해, 9월 14일 "2019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의 청와대 오체투지는 취소됐다. 같은 날 대한문 분향소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님들은 전원복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먼저 떠나간 노동자 26명 · 배우자 4명을 추모했다.

이 자리서 혜찬 스님은 "'낮은 자세에서 보라'란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며 소외된 쌍차 동지들과 함께해 왔다"며 "이 땅의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웃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태 해결의 의미를 전했다.

사회적 문제 인식 확산 기여

2009년 8월,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해고자 가족과 면담 후 이웃종교계에 쌍차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자고 목소리를 냈다. 이후 화쟁위원회, 불교시민단체 등이 쌍차 해고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로하고 천도재를 봉행하는 등 불교적인 방법으로 노동문제에 힘을 보태는 시도가 초기에 이루어졌다.

2012년 4월, 쌍차지부는 다시 한 번 종단 문을 두드린다. 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데 따라 불교의 노동문제 참여는 본격화됐다. 조계종은 △고인이 된 쌍차 해고자 천도재 봉행 △구속수감자 특별사면 청원 △노동문제 전담 기구 신설 등 쌍차지부와의 약속을 모두 지켰다.

그 과정서 불교계 주도로 범종교계부터 문제인식이 확대되었고, 언론을 통해 점차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충열 부지부장은 "조계종 스님들 덕분에 기독교, 원불교 등 다른 종교계가 연합해주셨다. 종교가 가진 힘으로 여론이 조금씩 바뀐 덕분에 복직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사분규 불교계 주요 활동

2009. 8. 4.	7대종교 긴급모임 제안
2011. 8. 16.	해고희생자 위로법회
2012. 2. 17.	해고희생자 천도법회
2012. 4. 5.	종단 차원 지원 약속
2012. 4. 21.	화쟁위, 범국민추모대회
2012. 5. 1.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 요청
2012. 9. 17~12. 25.	10만배 릴레이 정진
2015. 10. 3.	마힌드라 회장에 항의서한
2017. 12.	합의불이행, 청와대 1인시위
2018. 3. 12.	문제완전해결 오체투지
2018. 8. 14.	故김주중 해고자 49재
2018. 9. 14.	노-사, 전원복직 합의



'쌍차' 계기로 노동문제 앞장

불교계와 쌍차지부와의 연대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불교계는 쌍차 문제해결을 위해 했던 약속을 실천하고 그들과 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인권 문제에 앞장 서는 행보를 보였다. 노동위와 노동위가 확대 개편된 사노위를 중심으로 불교계는 점차 노동자들과 현장 곳곳에 뛰어들어 연대에 나섰다.

사노위는 불교적인 활동들을 함으로써 쌍차지부의 조속 복직과 피해자 명예회복, 정부 공식사과, 손배소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사노위 스님들은 긴 시간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법회, 10만배 정진, 단식, 49재, 오체투지 등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회상했다.

"소규모 투쟁장 도울 방법 찾겠다"

사노위는 향후 미해결 노동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노위 관계자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소규모 투쟁현장을 위해 사노위가 함께 연대할 방법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원 기자

독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현대불교 임직원 일동

